



첨단 그리드 기술을 한자리에,

제 13차 국제 그리드 포럼 서울 총회 개최

전세계의 그리드 분야 석학들과 IT 기업 중역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차세대 첨단 인터넷 기술인 '그리드 (GRID)'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제13차 국제그리드포럼(Global Grid Forum 13, 이하 GGF13)이 지난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소공동)에서 열렸다.

GGF는 차세대 첨단 컴퓨팅인 그리드 기술의 표준화와 개발·보급을 위한 국제조직으로써 서울에서 열린 이번 GGF13은 도쿄에서 개최된 GGF7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번째로 열리는 행사이며,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그리드포럼코리아(Grid Forum Korea, GFK)가 주관했다.

GGF 의장인 마크 리니쉬를 비롯한 영국 e-사이언스 사업 책임자인 엔지니어링 & 물리과학연구협회(EPSC)의 토니 헤이 박사 등 세계적인 그리드 전문가들뿐 아니라, IBM, NEC, SGI 등 세계적인 IT 관련 기업의 중역들이 참여하는 이번 GGF13에서는 20여개 RG(Research Group) 과 24개 WG(Working Group)에서 그리드 기술 연구 발표와 표준화 회의가 진행됐다.

특히, GGF13에서 처음으로 구성되어 열리는 Asia Grid Summit에서는 일본 그리드 사업 책임자인 사토시 세키구치 박사와 중국 후아퉁 과학기술대학교의 하이 진 박사를 비롯한 아시아 10여개 국가 그리드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드 기술의 조기 정착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환경 문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공동 프로젝트 및 사업 운영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다.

또, 그리드 이코노미 워크숍과 비즈니스 그리드 플래너리 세션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비즈니스 그리드에 관해 세계적 그리드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논의를 했고, 더불어 미래 IT 시장을 선도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수준 향상을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IT 839 정책과 그리드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보교류를 했다.

공식적인 프로그램 이외에도 행사장에서는 IBM, Oracle, NEC, 삼성, KT 등 20여개의 국내의 그리드 관련 업체 및 기관들이 참여하는 그리드 기술 시연과 전시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우리 연구원은 지난 3년 동안 수행해 온 국가 그리드 프로젝트 K*Grid의 연구결과인 국내 최초 자체 개발 그리드 미들웨어 MoreDream와 MoreDream을 포함한 한국형 그리드 서비스 패키지 KMI-R1(K*Grid Middleware Initiative-Release1)을 시연했다.

그리드란?

그리드(Grid)란 지리적으로 분산된 고성능 컴퓨터, 대용량 저장장치나 데이터베이스, 첨단 실험장비 등의 정보통신 자원을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해 상호 공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컴퓨팅 환경을 뜻한다.

